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호 [루게 제24791호] 주제104 (2015)년 1월 13일 (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인민무력부장인 육군 대장 현영철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한광상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병철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인 항공군상장 최영호 동지, 정치위원인 항공군중장 손철주 동지를 비롯한 지휘성원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드리시고 삼가 인사를 올리시였다.



길이 빛내이려는 항공 및 반항공군 전체 장병들과 천만군민의 고결한 총정과 승고한 도덕의리심의 발현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를 떠나서 우리 항공무력의 강화발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우리의 비행사들은 수천수만갈래의 하늘 길이 있어도 오직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총정의 향로만을 날으는 하늘의 성새, 방패로 역세계 자라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전체 장병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군업적을 영원히 잊지 말고 승리와 영광의 년륜을 아로새겨온 항공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그대로 이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이끌어주신 항공군의 영광스러운 항로를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변함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형상한 동상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력사

의 갈피마다에 어려있는 백두령장들의 거룩한 령군업적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지난해 뜻깊은 항공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군중, 군단급단위들 중에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제일먼저 모신것은 주체적항공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업적을

이끌어주신 항공군의 영광스러운 항로를 영웅적투쟁과 위훈으로 변함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은 전체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정신적기둥이고 고무적기치로 된다고 하시면서 동상정성사업과 위대성교양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늘 위대한 태양의 모습을 우러르며 군무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성원들과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체 장병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이 제시한 군건설의 전략적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항공무력의 정치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비행사들과 지휘성원들이 지나가나 싸움에 대하여 생각하고 모든 문제들을 싸움준비전지에서 보고 대하며 걸린 문제들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 당의 군사전략술사상과 주제전법,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최단기간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당의 혼련제일주의구호 밑에 혼련의 질을 높이는 데 모를 막고 비행전투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실천과 무관한 혼련은 백날, 천날을 해도 필요가 없다고, 한가지 혼련을 하여도 내용과 형식, 방법이 현대전의 양상에 맞는 혼련, 실천환경과 접근된 혼련을 진행하도록 하자는 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휘부에 새로 꾸린 종합적인 체육 및 문화시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현대적인 종합체육 및 문화시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모든 형성인들의 요소요소를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었으며 강력한 건설력량과 함께 자재와 설비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새로 꾸린 종합적인 체육 및 문화시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현대적인 종합체육 및 문화시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모든 형성인들의 요소요소를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었으며 강력한 건설력량과 함께 자재와 설비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새로 꾸린 종합적인 체육 및 문화시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현대적인 종합체육 및 문화시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모든 형성인들의 요소요소를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었으며 강력한 건설력량과 함께 자재와 설비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새로 꾸린 종합적인 체육 및 문화시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현대적인 종합체육 및 문화시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모든 형성인들의 요소요소를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었으며 강력한 건설력량과 함께 자재와 설비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새로 꾸린 종합적인 체육 및 문화시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현대적인 종합체육 및 문화시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모든 형성인들의 요소요소를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었으며 강력한 건설력량과 함께 자재와 설비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새로 꾸린 종합적인 체육 및 문화시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현대적인 종합체육 및 문화시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모든 형성인들의 요소요소를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었으며 강력한 건설력량과 함께 자재와 설비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새로 꾸린 종합적인 체육 및 문화시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현대적인 종합체육 및 문화시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모든 형성인들의 요소요소를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었으며 강력한 건설력량과 함께 자재와 설비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새로 꾸린 종합적인 체육 및 문화시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현대적인 종합체육 및 문화시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모든 형성인들의 요소요소를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었으며 강력한 건설력량과 함께 자재와 설비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새로 꾸린 종합적인 체육 및 문화시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현대적인 종합체육 및 문화시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모든 형성인들의 요소요소를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었으며 강력한 건설력량과 함께 자재와 설비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새로 꾸린 종합적인 체육 및 문화시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현대적인 종합체육 및 문화시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모든 형성인들의 요소요소를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었으며 강력한 건설력량과 함께 자재와 설비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새로 꾸린 종합적인 체육 및 문화시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현대적인 종합체육 및 문화시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모든 형성인들의 요소요소를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었으며 강력한 건설력량과 함께 자재와 설비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새로 꾸린 종합적인 체육 및 문화시설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에 현대적인 종합체육 및 문화시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모든 형성인들의 요소요소를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었으며 강력한 건설력량과 함께 자재와 설비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지원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김정은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청천강을 보배강, 전기강으로 전변시키는데 기여할 일념으로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산하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후방물자를 마련하여 발전소 건설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돌격대원들에게 인격적으로 격려를 베풀어주시고, 후방물자를 보내주시였다. 그들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다는 수직차체의 다채로운 경제성동활들을 힘있게 벌려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실현해가는 건설사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평양정보기술교류사 연구사 박성일,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로동자 박명주는 조국의 발전제부를 일떠세우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돌격대에 망라되어 헌신하고있으며 후방사업에서도 모범을 보이고있다. 발전소건설장에 달려나간 첫날부터 로력투쟁에 앞

장서고있는 선교구역련의봉사사업소 로동자 한영미, 평양시인민위원회 상임판공관 산하단위 로동자 최은경은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지원사업도 잘하였다. 세월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당의 사랑과 은덕에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적극 돕고있는 강동구역의봉사사업소 로동자 박영애는 건설자들에게 친혈육의 정을 기울이며 많은 후방물자를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국가계획위원회 로동자 홍금옥은 돌격대원들을 고무하는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하였으며 봉성고기가공공장 로동자 김혜옥도 건설사들과 함께 일하는 심정으로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감사를 받아안은 영광을 지닌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10월의 대추진장을 향한 총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쳐나갈 열의에 넘쳐있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최후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여러 나라 정계인사들 담화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최후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여러 나라 정계인사들은 담화 발표를 통해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최후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종할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남조선에서 모든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김정일정권을 평화정착으로 전환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사대매국적인 동족대결정책에서 벗어나 동족을 겨냥한 모든 형태의 전쟁연습을 그만두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반대성운동을 보다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다. 김정은명도자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발상적인 반공화국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최후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여러 나라 정계인사들은 담화 발표를 통해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최후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종할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남조선에서 모든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김정일정권을 평화정착으로 전환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사대매국적인 동족대결정책에서 벗어나 동족을 겨냥한 모든 형태의 전쟁연습을 그만두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반대성운동을 보다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다. 김정은명도자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발상적인 반공화국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최후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여러 나라 정계인사들은 담화 발표를 통해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최후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종할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남조선에서 모든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김정일정권을 평화정착으로 전환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사대매국적인 동족대결정책에서 벗어나 동족을 겨냥한 모든 형태의 전쟁연습을 그만두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반대성운동을 보다 과감히 벌려나갈것이다. 김정은명도자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발상적인 반공화국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 * *

필승의 기상을 떨치며 체육강국의 봉우리를 향하여 앞으로!

세계를 압도하는 역센 힘 키워 더 높이 비약하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어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를 더 높이 휘날리며 체육강국건설의 전방을 열어나가기 위한 장엄한 진군이 시작되었다. 각지 체육단들에서는 겨울철훈련의 불바람으로 더욱 부글부글 끓고있다.

조국해방 70돐, 당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새로운 승리의 열풍, 금메달열풍을 안아오기 위한 보람찬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육경기의 성과는 선수들의 육체적준비와 기술, 전술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난해에 나라의 체육사업에서는 참으로 자랑할만 한 성과들이 많이 이룩되었다. 특히 미더운 체육인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여러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많은 국제경기들에서 승리의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높이 떨치고 광복색공화국기를 세계의 하늘가에 펄펄 휘날리는 경이적인 성과를 얻어안았다.

이 기세를 끊임없이 박자를 가하여 뜻깊은 올해에 새로운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고 비약의 개를 더욱 활짝 열어나가는 것은 체육강국건설의 전초선을 지켜선 우리 체육인들앞에 나서서 중요한 과제이다. 당이

말겨준 성스러운 과업을 수행하자면 겨울철훈련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그러면 상대보다 단연코 누를수 있는 강한 육체적능력을 소유해야 한다. 선수들이 사상적으로나 기술진술적으로 잘 준비되어도 육체적으로든 튼튼히 준비되지 못하면 그 위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으며 승리의 금메달을 생각할 수 없다.

지난해에 진행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여러 종목의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영예의 1위를 쟁취한 선수들의 자랑찬 성과에는 완강한 겨울철훈련을 통하여 다지고다진 높은 육체적 능력이 반영되어있었다.

정신력과 기술, 전술의 대결인 체육경기에서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체육선수들 누구나 겨울철훈련을 통하여 육체적능력을 더욱 높이고 기술, 전술발달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쌓아야 앞으로 진행되는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와 제2차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한 모든 국제경기들에서 나라와 민족의 슬기와 필승의 기세를 높이 떨칠수 있고 체육강국건설의 승리의 날을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에서 선구자의 값높은 삶을 빛내일수 있다.

겨울철훈련장마당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이 나래치게 하고 김정일애국주의의 불길기 활할

일어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지난해의 자랑찬 국제경기성과로 하여 각지의 감독, 선수들의 가슴속에는 드높은 신심과 비상한 애국의 열정으로 더욱 달아오르고있다. 국제경기금메달상자들의 혁명적 성과에 고무되어 신진선수들도 하루빨리 선진조선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는 세계적인 체육강자로 자랄 열망에 넘쳐있다.

체육부에서는 양양된 체육인대중의 정진력을 활화산같이 분출시키는 정치사업, 사상동원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어디서나 겨울철훈련강령을 전투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혁명적투쟁기풍이 차남치게 하여야 한다.

시대의 슬기와 필승의 피라라는 혼연으로 뭉쳐온 순간이 아시아와 세계대륙을 뚫어줄수 있다.

체육선수들 모두가 훈련에서 세태의 이 있을수 없으며 사상대의 높이는 조국의 높이라는 투철한 자각을 안고 인민군과 인민혁명군을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한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는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배짱을 지니고 높은 목표를 세운데 기초하여 피눈물의 열정을 다 바쳐 오늘의 한층한층을 백날, 천날달잡이로 이악하게, 완강하게 훈련함으로써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우승의 기상

대우에 긍지높이 올라설수 있는 강한 육체를 역ချ각이 다져나가야 한다.

우리 선수들의 비상한 정진력에 과학의 힘이 안발치되면 겨울철훈련에서도 전례없는 성과가 창조된다.

감독들은 어제날의 경험에 매달리는 재래식훈련으로써는 세계적인 패권자들을 키워낼수 없다는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체육과학연구사, 체육의료연구사들과의 긴밀한 협동작전으로 겨울철훈련지도의 과학화수준을 다져야 한다. 체육과학연구부문의 세계적인 체육과학발전추세를 확고히 장악한데 토대하여 최첨단과학기술을 힘있게 벌려 선수들의 훈련을 보다 과학화할수 있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이룩함으로써 겨울철훈련에 비약의 활력을 끊임없이 부여하여야 한다.

체육성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과 각지 체육단들에서는 일군들과 일대에 서서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면서 선수들의 겨울철훈련조건보장사업을 기동성있게 따라세우고 영양관리, 입과 조직을 현실성있게 짜고들어 그들의 양양된 열의를 새로운 훈련장기광조대로 더욱 고무추진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체육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높이고 겨울철훈련을 물질방면으로 적극 지원하여 선진조선의 금메달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전으로 우리 체육인들을 힘있게 떠밀어주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지난해 10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 감독들을 몸가짜이 불러주시고 그들의 성과를 두고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앞으로도 더 높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노력함으로써 아시아의 패권, 세계패권을 닦아내는 국제경기들마다에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만하게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사랑의 기념사전을 찍으셨었다.

이보다 더 큰 영광, 이보다 더 값높은 체육인의 영예는 세상에 없다.

영원한 태양의 빛바람과 더불어 격동적인 시대가 우리 체육인들을 새로운 위훈창조로 부르르고 있다.

세계를 압도하는 역센 힘 키워 더 높이 비약하자!

웃구치는 애국의 정진력을 활화산같이 분출시켜 체육강국으로 더욱 빛날 백두산대군의 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총진군 앞으로!

본사기자 오철률

조선 체육 대학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기 위하여서는 체육을 과학화하여야 한다.》

새해의 진군길에 펼쳐나선 조선체육대학 일군들과 교원, 연구자들의 기세는 매우 높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받들어 나라의 체육과학발전에서 한몫 담당할 할것없는 열의로 심장을 뜨겁게 달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자자구 학습할수용 학생선수들은 대학이 진행되는 체육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는 방도가 뚜렷해지고 일군으로서의 안목이 더욱 넓어지는것을 금할수 없다.

이들은 이 기간에 높이 세운 목표를 무조건 달성하기 위하여 현실에 몸을 담고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빠른 기간안에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방법론도 찾아냈다. 훈련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실지동작을 수행하면서 달라진 전투경기규칙에 따르는 선수들의 인내력문제, 유소년선수들의 경기후 회복수업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완강히 전개하면서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한편 시간을 쪼개가며 체육의 과학화실현에 이바지하는 도서집필에 바쳐가는 열정도 비상하다.

당의 품속에서 다지고다진 지혜와 슬기를 아낌없이 분출시켜 체육강국건설의 지름길을 앞장서서 열자!

은 대학이 이렇게 끓고있다. 당의 전투적소속과 현실에 든든히 발을 붙이고 높은 목표를 향하여 체육과학연구사업을 맹렬히 벌리고있는 이들의 뜨거운 투쟁은 뜻깊은 10월의 대승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는 자랑찬 성과로 이어질것이다.

지 혁 철

에 기초하여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일군들은 연구과제들을 종합적으로 로해하고 매 교원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맡겨주기 위한 계획을 면밀하게 세웠다.

뿐만아니라 교육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면서 학부별특성을 잘 살려 세계적인 체육발전추세에 맞게 나라의 체육과학발전을 과학적으로 안받침할수 있게 하는 현실성있는 연구과제들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구력량을 증강하거나 새로 꾸려 체육과학연구사업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킬수 있게 조직적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고있다.

대학안의 모든 학부들이 그러하지만 특히 기초과학학부에 차넘치는 과학열의가 뜨겁다.

학부장 양성소동무는 체육강국건설의 전방을 열어나가는 데서 학부가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겨안고 올해 교육사업은 물론 과학연구사업에서도 더 높은 성과를 이룩할 열의로 분발해나갔다.

졸기찬 과학연구활동과 결부하여 학부의 학위학석사수준자료를 더욱 높일 목표를 세우고 교원대중을 적극 발동하고있다.

학부에서는 교원들이 학위학석사수준자료를 높이 정하고 나라의 체육과학발전이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사업과 등을 가지고 학위논문집필을 다그치도록 하는것과 함께 학생들도 체육과학연구사업에 적극 뛰어들도록 잘 이끌어주고있다.

전투강과 교원 박성호, 유철

다시 세운 체육경기일정, 우리는 이 하나의 세부를 통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어 대중의 체육열기를 고조시키는 사업에서도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려붙을 이곳 일군들의 전투적인 사업기풍을 잘 알수 있었다. 일군들이 앞장서 선 남포항의 대중체육당이 올해에 더욱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것이라는 의의심과 열의였다.

본사기자 전철호

선수후비육성에서 중시한 문제

평천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평천구역청소년체육학교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올해 체육선수후비육성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대책안을 토의하면서 교장 박근신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이 특별히 중시한것은 교수훈련의 과학화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문제였다.

지난해사업을 돌이켜보면서 찾은 경험과 교훈도 과학적인 교수훈련방법이 안받침되지 않고서는 체득있는 체육선수후비육성을 더 많이 키워낼수 없다는것이였다.

이날 체육과학기술펠합실은

영에 필요한 설비들을 보충하기 위한 문제, 지도교원들속에서 자질향상의 된바람을 일으켜 보다 과학적인 훈련지도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문제, 연구자들이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더 많이 거둬들이기 위한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토의되었다.

결구 올해의 결의목표가 지난해보다 높여졌다.

이렇게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도 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전투적과업을 자로 하여 교수훈련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것을 올해사업의 중심고리로 찾은 학교일군들은

높이 세운 목표실현을 위한 투쟁을 신심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은 집단에 차넘치는 과학중시 기풍은 학생들의 실력을 최대한 높이는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축수와 배수를 비롯하여 여러 종목에서 학생들의 나이와 심리, 육체적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교수훈련방법들이 적극 도입되고있다. 그로 하여 학생들의 기초기술수준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있다.

당정책의 요구대로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비약의 종자를 확고히 틀어박이 학교의 사업성과가 더욱 기대된다.

본사기자



조국의 영예를 금메달로 떨쳐갈 유능한 축구선수후비육으로 준비해가고있다. -회령시청소년체육학교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도서관을 훌륭히 개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행사에서 도서관이 맡고 있는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깊은 사랑속에 가장도도서관이 훌륭히 개건되었다.

건물의 외부와 주변환경은 물론 컴퓨터장비, 전자열람실을 비롯한 독자들이 리용하는 수습개의 방들이 현대적미감이 느껴졌다.

수많은 직관교육단들이 최상의 수준으로 갖추어졌을뿐아니라 도서관관리운영의 현대화, 정보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가장도도서관은 당의 진인 과학기술인재화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사회화학습의 거점, 과학기술자식보급기지이다.

지난해초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도들에 현대적인 도서관을 본보기로 일떠세우고 잘 운영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도서관에 나가 실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도와장기시대의 해당 부문 일군들의 회의를 열었다. 협의에서는 도서관의 면모를 현대적미감이 느껴질수 있게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직관교육단들과 설

비들, 도서관관외영역에 요구되는 설비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도당위원회와 지도밑에 강계시당위원회에서는 시공공건물보수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근로자들로 건설력량을 편성하였다.

도시계획건설보수공사에 펼쳐나선 근로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나라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10개월동안에 수천㎡ 되는 3층건물외벽개조공사와 수백㎡의 색유리기우공사, 건물내부의 복도, 층계와 수습개 방들의 천정, 벽, 바닥, 방공사, 율타리 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당위원회와 도검찰부, 도소검찰부, 도교리약생산관리회, 도청년동맹을 비롯한 단체인 기관관들이 긴급보수공사를 적극 도와나섰다.

강계시당위원회, 강계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은 개건보수공사에 필요한 마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었다.

도당위원회와 지도밑에 도의 일군들은 도시계획건설보수공사가 끝나는데 맞게 현대적인 교육수단들과 설비들, 도서관관리운영에 요구되는 수습개의 설비들과 비품들도 일적으로 해결해주었다.

도서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원격건설, 종합강의실을 비롯한 수습개의 방들에 직관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조직하는 체육활동에는 간부들이 비롯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다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새해의 첫 체육의 날 남포항은 혁명적광명과 열정을 북돋아주는 대중체육활동으로 흥성이 되었다.

너도나도 운동복을 땀칠하고 음악에 맞추어 진행한 기백넘친 건강태권도와 대중물동체조며 다채로운 체육경기들로 온 향만이 들썩이였다.

우리가 이곳 일군들과 노동자들을 만나보는 과정에 주목을 돌린것은 모든 체육사업이 품들어 치밀하게 조직되고 그 열정에 넘쳐있는 열의가 넘쳐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체육의 날 경기일정을 놓고도 이 날 진행된 배구, 바둑당기기를 비롯한 여러 종목 경기들도 불만 없이 진행한 행정일군들이 참가한 탁구경기는 결정을 이루었다.

남포항에서

경기는 처음부터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재미있는 기술로써 연속 공격을 들이대는 책임일군들의 수준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종업원들의 용원력으로 드높았다.

경기장에 넘치는 관심, 그칠새없이 울리는 사람들의 힘찬 응원소리...

드높은 체육열기가 차넘치는 광민적인 화폭에서 눈길을 빼지 못하는 우리에게 항쟁열의넘친 로명철동무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올해의 첫 체육의 날을 며칠 앞둔 남포항의 당책임일군이 그와 마주앉아 경기일정을 토의하면서 한가지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것은 이미 세워진 경기일정에 항의 책임일군들이 참가하는 경기종목이 없는것이였다.

우리 일군들이 체육경기조직이나 하고 박수나 쳐주는 식으로 해서야 어떻게 체육활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여주고

다시 세운 체육경기일정

남포항에서

모든 종업원들이 대중체육사업에 참가하도록 할수 있었는가. 이는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체육사업에서도 일군들이 선구자가 되어 체육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대중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전으로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

이렇게 되어 체육경기일정은 다시 세워지고 올해의 첫 체육의 날에 항쟁열의넘친 탁구경기도 펼쳐져 대중의 사기를 더욱 올려주는데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다시 세운 체육경기일정, 우리는 이 하나의 세부를 통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어 대중의 체육열기를 고조시키는 사업에서도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려붙을 이곳 일군들의 전투적인 사업기풍을 잘 알수 있었다. 일군들이 앞장서 선 남포항의 대중체육당이 올해에 더욱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것이라는 의의심과 열의였다.

본사기자 전철호

다시 세운 체육경기일정, 우리는 이 하나의 세부를 통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어 대중의 체육열기를 고조시키는 사업에서도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려붙을 이곳 일군들의 전투적인 사업기풍을 잘 알수 있었다. 일군들이 앞장서 선 남포항의 대중체육당이 올해에 더욱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것이라는 의의심과 열의였다.

본사기자 전철호



다시 세운 체육경기일정, 우리는 이 하나의 세부를 통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어 대중의 체육열기를 고조시키는 사업에서도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려붙을 이곳 일군들의 전투적인 사업기풍을 잘 알수 있었다. 일군들이 앞장서 선 남포항의 대중체육당이 올해에 더욱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것이라는 의의심과 열의였다.

도서관을 훌륭히 개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행사에서 도서관이 맡고 있는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깊은 사랑속에 가장도도서관이 훌륭히 개건되었다.

건물의 외부와 주변환경은 물론 컴퓨터장비, 전자열람실을 비롯한 독자들이 리용하는 수습개의 방들이 현대적미감이 느껴졌다.

수많은 직관교육단들이 최상의 수준으로 갖추어졌을뿐아니라 도서관관리운영의 현대화, 정보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가장도도서관은 당의 진인 과학기술인재화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는 사회화학습의 거점, 과학기술자식보급기지이다.

지난해초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도들에 현대적인 도서관을 본보기로 일떠세우고 잘 운영할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도서관에 나가 실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도와장기시대의 해당 부문 일군들의 회의를 열었다. 협의에서는 도서관의 면모를 현대적미감이 느껴질수 있게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직관교육단들과 설

비들, 도서관관외영역에 요구되는 설비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도당위원회와 지도밑에 강계시당위원회에서는 시공공건물보수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근로자들로 건설력량을 편성하였다.

도시계획건설보수공사에 펼쳐나선 근로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나라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10개월동안에 수천㎡ 되는 3층건물외벽개조공사와 수백㎡의 색유리기우공사, 건물내부의 복도, 층계와 수습개 방들의 천정, 벽, 바닥, 방공사, 율타리 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당위원회와 도검찰부, 도소검찰부, 도교리약생산관리회, 도청년동맹을 비롯한 단체인 기관관들이 긴급보수공사를 적극 도와나섰다.

강계시당위원회, 강계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은 개건보수공사에 필요한 마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었다.

도당위원회와 지도밑에 도의 일군들은 도시계획건설보수공사가 끝나는데 맞게 현대적인 교육수단들과 설비들, 도서관관리운영에 요구되는 수습개의 설비들과 비품들도 일적으로 해결해주었다.

도서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원격건설, 종합강의실을 비롯한 수습개의 방들에 직관교

어길수 없는 일과

금강지도국에서

금강지도국의 일군인 박수일동무에게는 사업이 아무리 분망하여도 언제나 어김없이 수행하는 습관은 일과가 있다.

그것은 매우 목요일마다 물에 뛰어들기감독, 선수들을 찾아와 훈련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는것이였다.

이처럼 지도국일군들의 체육지원열의는 대단하다.

새해 첫 훈련에 전일한 감독, 선수들은 또다시 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해가지고 찾아와 신심을 더해

어길수 없는 일과

금강지도국에서

우리는 즉시에 협의회를 열고 해결대책을 세웠다. 박수일동무는 선수들의 훈련보장에 필요한 물자해결에서도 앞장섰다.

이처럼 지도국일군들의 체육지원열의는 대단하다.

새해 첫 훈련에 전일한 감독, 선수들은 또다시 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해가지고 찾아와 신심을 더해

어길수 없는 일과

금강지도국에서

우리는 즉시에 협의회를 열고 해결대책을 세웠다. 박수일동무는 선수들의 훈련보장에 필요한 물자해결에서도 앞장섰다.

이처럼 지도국일군들의 체육지원열의는 대단하다.

새해 첫 훈련에 전일한 감독, 선수들은 또다시 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해가지고 찾아와 신심을 더해

어길수 없는 일과

금강지도국에서

우리는 즉시에 협의회를 열고 해결대책을 세웠다. 박수일동무는 선수들의 훈련보장에 필요한 물자해결에서도 앞장섰다.

이처럼 지도국일군들의 체육지원열의는 대단하다.

새해 첫 훈련에 전일한 감독, 선수들은 또다시 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해가지고 찾아와 신심을 더해

어길수 없는 일과

금강지도국에서

우리는 즉시에 협의회를 열고 해결대책을 세웠다. 박수일동무는 선수들의 훈련보장에 필요한 물자해결에서도 앞장섰다.

이처럼 지도국일군들의 체육지원열의는 대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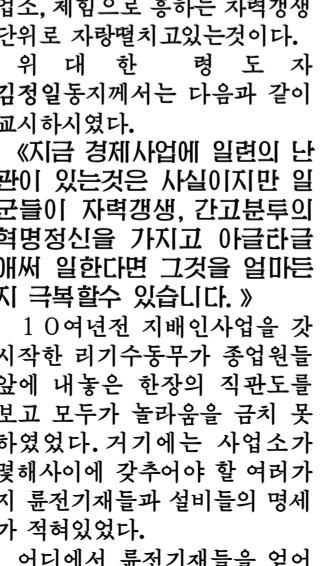
새해 첫 훈련에 전일한 감독, 선수들은 또다시 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해가지고 찾아와 신심을 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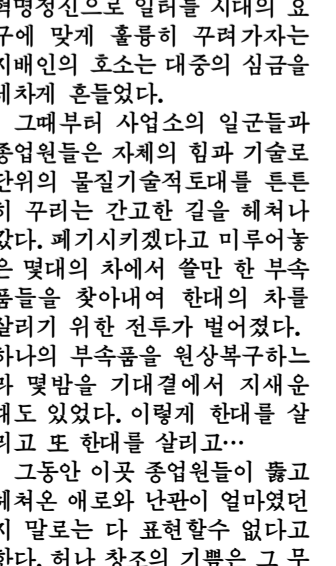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행사에서 도서관이 맡고 있는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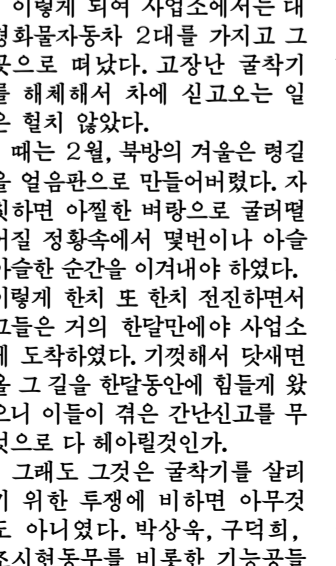
다시 세운 체육경기일정, 우리는 이 하나의 세부를 통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어 대중의 체육열기를 고조시키는 사업에서도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려붙을 이곳 일군들의 전투적인 사업기풍을 잘 알수 있었다. 일군들이 앞장서 선 남포항의 대중체육당이 올해에 더욱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것이라는 의의심과 열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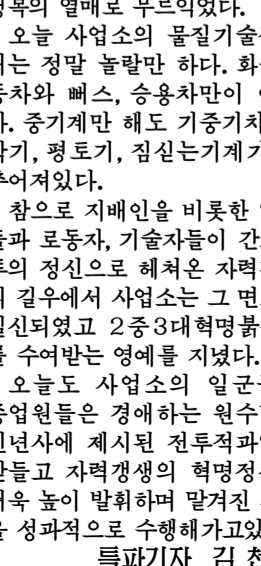
다시 세운 체육경기일정, 우리는 이 하나의 세부를 통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어 대중의 체육열기를 고조시키는 사업에서도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려붙을 이곳 일군들의 전투적인 사업기풍을 잘 알수 있었다. 일군들이 앞장서 선 남포항의 대중체육당이 올해에 더욱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것이라는 의의심과 열의였다.



다시 세운 체육경기일정, 우리는 이 하나의 세부를 통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어 대중의 체육열기를 고조시키는 사업에서도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려붙을 이곳 일군들의 전투적인 사업기풍을 잘 알수 있었다. 일군들이 앞장서 선 남포항의 대중체육당이 올해에 더욱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것이라는 의의심과 열의였다.



다시 세운 체육경기일정, 우리는 이 하나의 세부를 통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어 대중의 체육열기를 고조시키는 사업에서도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려붙을 이곳 일군들의 전투적인 사업기풍을 잘 알수 있었다. 일군들이 앞장서 선 남포항의 대중체육당이 올해에 더욱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것이라는 의의심과 열의였다.



다시 세운 체육경기일정, 우리는 이 하나의 세부를 통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어 대중의 체육열기를 고조시키는 사업에서도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려붙을 이곳 일군들의 전투적인 사업기풍을 잘 알수 있었다. 일군들이 앞장서 선 남포항의 대중체육당이 올해에 더욱 자랑찬 성과를 이룩할것이라는 의의심과 열의였다.

우리는 반드시 최후 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매개 나라와 민족에게 있어서 흥망성쇠를 가르켜 될 새해가 펼쳐졌다. 2015년의 첫 기운을 출발한 모든 나라와 민족의 심정은 각이하다. 희망과 포부를 잡고 목적지향성 있게 전진하는 나라와 민족이 있는 반면에 불안과 우려속에서 도대기며 갈질물라 해매이는 나라와 민족도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새해의 힘찬 전진길을 개시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올해가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해로 력사에 빛나게 기록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경쟁하는 경쟁은 동지끼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다. **«위대한 당의 령도하에 혁명적 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처럼 폭풍처럼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 의 것이다.»**

강성국가를 건설하면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이룩한다. 그 어떤 제국주의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듯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생전의 뜻이었고 오대한 목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승고한 념원과 유희를 받들어 온 세계가 보란듯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려는것은 경쟁하는 경쟁은동지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은 허공에 뜬 빌딩이 아니며 결코 먼 앞날의 일도 아니다.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과 군사적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자만하지 않고 심화발전되는 우리 혁명의 현실적요구, 복잡다단하게 변화되는 국제정세속에서 정치사상적위력과 군사적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다.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투쟁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치렬한 대결로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 경쟁에서 앞장서서 우리를 살고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제국주의의 보이지 않는 치렬한 대결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시말하여 우리 삶과 생활의 모든 분야가 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최종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는것이 곧 우리 나라가 강성국가의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는것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반미대결전에서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날은 멀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년대와 세기를 이어 흘러오고있는 법칙적인 승리의 전통이 있다.

해방후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물론 전후복구건설시기와 그 이후 미래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대결전에서 우리는 번번 승리를 하였다. 오랜 조미대결사의 언제나 승리는 우리였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승리의 전통은 최후승리와 잇닿아있다.

반면에 미래는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뉘에 맞고 놓아나기만 하는 법칙적인 패배의 전통을 가지고있다. 조선전쟁을 도발할때도 미래는 중앙대는 패배자의 물골을 하고 조선전쟁전후에 도장을 찍지 않았던 인연이다. 그후 혁명발전의 여러 단계들에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해 계속 도발을 걸며 못되게 놀았지만 매년 패배를 면치 못하였다. 수치스러운 이 패배의 전통은 미래국주의의 최후멸망을 계속하고 있다.

이 법칙적인 두 전통은 지난해에도 어적이었어 흘렀다.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미국무성 부대변인 이 나서서 미국정부의 2014년 대조선정책의 목표도 그 전제와 마찬가지로 비핵화가 될것이라고 위협성시하면서 우리가 《국제적무를 준수해야 한다.》, 《도발적행위를 삼가야 한다.》, 《노니 하는 도적이 매를 뜨는 격의 나발을 붙여왔다. 미국무장관 케리는 워싱턴에서 대조선외교담당국장을 만나 우리에 대한 《예측이 더욱 어둡아지고 《도발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만큼 미국대조선합동군사연습실시 등 대조선억제력을 강화해나간다고 야 한다고 력성하였다. 이것은 지난해초에 벌써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 나라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총력전을 개시하였다는것을 선언한것이다.

다를바 없는것이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남관계개선에 제동을 걸었다.

오바마정권의 여러 고위관료들은 남조선을 직접 핵타격하기도 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을 미국에 불러들이기도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에 나서지 못하도록 이모저모로 오금을 박으며 못되게 놀아냈다. 우리가 남조선당국의 요구를 대범하게 받아들여 남조선의 기대이상으로 흥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 등 계획문제에 관한 합의를 주며 풀어나갈 때에도 미국은 판도라 상자인 《B-52》핵전략폭격기편대를 끌어들이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핵타격연습을 벌이면서 고의적으로 북남관계개선에 차단봉을 내리는 당동을 부렸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박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지난해 3월 우리 공화국 국방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여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모든 조치들을 전면철회하는 정책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에 아무런 단계들에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해 계속 도발을 걸며 못되게 놀았지만 매년 패배를 면치 못하였다. 수치스러운 이 패배의 전통은 미래국주의의 최후멸망을 계속하고 있다.

이 법칙적인 두 전통은 지난해에도 어적이었어 흘렀다.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미국무성 부대변인 이 나서서 미국정부의 2014년 대조선정책의 목표도 그 전제와 마찬가지로 비핵화가 될것이라고 위협성시하면서 우리가 《국제적무를 준수해야 한다.》, 《도발적행위를 삼가야 한다.》, 《노니 하는 도적이 매를 뜨는 격의 나발을 붙여왔다. 미국무장관 케리는 워싱턴에서 대조선외교담당국장을 만나 우리에 대한 《예측이 더욱 어둡아지고 《도발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만큼 미국대조선합동군사연습실시 등 대조선억제력을 강화해나간다고 야 한다고 력성하였다. 이것은 지난해초에 벌써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 나라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총력전을 개시하였다는것을 선언한것이다.

미국은 또한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달려들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선군정치, 병진로선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우리 당의 존엄과 권위를 훼손시켜 부리고 추진 에를 했다. 또한 그

무슨 《진정성》타령을 늘어놓으며 조선반도비핵화를 파탄시킨 자들의 죄임을 모두 우리에게 넘겨쳐버리고서 발악하였다.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지난해 6월 대조선경제체제를 1년 연장하는 조지를 취하였다. 《대통령행정명령》으로 여러해째 실시되고있는 이 경제체제는 《비상하고 특별한 위험》이라는 간판에 우리의 핵억제력강화를 가로막기 위하여 기본을 둔것이었다. 미재무성은 미국금융기관들에 우리 나라와 관련된 실적을 주며 풀어나갈 때에도 미국은 판도라 상자인 《B-52》핵전략폭격기편대를 끌어들이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핵타격연습을 벌이면서 고의적으로 북남관계개선에 차단봉을 내리는 당동을 부렸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상과 도덕의 힘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궁지에 빠지게 하였다.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진지침사령관으로서 시작된 혁명전진통교양은 불길은 전면철회하는 정책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에 아무런 단계들에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해 계속 도발을 걸며 못되게 놀았지만 매년 패배를 면치 못하였다. 수치스러운 이 패배의 전통은 미래국주의의 최후멸망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달려들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선군정치, 병진로선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우리 당의 존엄과 권위를 훼손시켜 부리고 추진 에를 했다. 또한 그

미국은 또한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달려들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선군정치, 병진로선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우리 당의 존엄과 권위를 훼손시켜 부리고 추진 에를 했다. 또한 그

진행한것은 우리의 자위적전쟁억제력이 또 한단계의 질적미약을 이룩하였음을 실증해주었다.

미국은 우리의 핵억제력강화를 가로막기 위하여 기본을 둔것이었다. 미재무성은 미국금융기관들에 우리 나라와 관련된 실적을 주며 풀어나갈 때에도 미국은 판도라 상자인 《B-52》핵전략폭격기편대를 끌어들이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핵타격연습을 벌이면서 고의적으로 북남관계개선에 차단봉을 내리는 당동을 부렸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말았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상과 도덕의 힘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을 궁지에 빠지게 하였다.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진지침사령관으로서 시작된 혁명전진통교양은 불길은 전면철회하는 정책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에 아무런 단계들에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해 계속 도발을 걸며 못되게 놀았지만 매년 패배를 면치 못하였다. 수치스러운 이 패배의 전통은 미래국주의의 최후멸망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달려들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선군정치, 병진로선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우리 당의 존엄과 권위를 훼손시켜 부리고 추진 에를 했다. 또한 그

미국은 또한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달려들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선군정치, 병진로선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우리 당의 존엄과 권위를 훼손시켜 부리고 추진 에를 했다. 또한 그

법률적인 《인권》공세로 우리의 일심단결을 허물어버리고 주권전복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책동은 지난해에 절정에 달하였다.

주권에 우리 제3차 지하핵실험에서 성공하자 정치군사적압박으로 대이상 우리의 《선 핵포기》를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간파한 미국은 《인권문제》를 국제화하여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리고 국제적압박의 방법으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붕괴시키기 위한 모략작전에 달려들었다. 그들의 거수기들이 많이 들어있는 유엔인권리사회에 우리의 《인권문제》를 맡아보는 《조사위원회》라는 것을 내고 인권조사기구를 내세워 자료화하도록 한 미국은 유엔동맹의 일부 나라들과 일본을 내세워 유엔무대에 정식 상정시켰으며 끝내 법외적인 《인권결의》를 조작하였다.

유엔력사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우리 인민을 우리 악무도하게 학살한 미제가 미국의 《인권》에 대해 떠드는것은 어불성설로서 용납할수 없는것이였다.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시기 2개월도 못되는 기간에 우리 나라의 곳곳에서 치명적인 인간살육판행을 강행하였다. 신천군에서만도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 000여 명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야수적인 방법으로 무참히 학살하였다.

반면반은 제방에서 농사를 짓고 살며 나라의 지천에서 전과로 유혈한 인간을 계속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위헌행위를 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선 핵포기》를 실현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참혹한 비극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하였다. 그래서 사회주의의 보루이며 자주와 정의의 성인인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박하기 위한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강행하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갔지만 우리의 《선 핵포기》를 실현할수 없다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할수 없었다.

오죽하면 미국내에서조차 오바마의 《전략적인내정책》을 《리만》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정책, 《태만한 정책》, 《판관정적자》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져나갔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박하려는 기도도 실현될수 없게 되자 비열한 《인권》소동을 매달렸다.

미국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대답도 하지 않고 사죄도 하지 않은 살인악마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도둑수첩에 감행하는 미국의 《인권》소동은 결국 우리 나라에 인권의 비극을 퍼붓아려는 야망의 발로이다. 신천의 비극은 국권이 유린당하면 인권이 무참히 말살된다는 력사의 교훈을 매일, 매 시각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깨우쳐주고있다.

미국의 법외적인 《인권》소동은 당최 천만민간의 분노를 하늘끝에 닿게 하였으며 천백배로 복수한 일념으로 끓어받치게 하였다. 미국은 《인권》소동을 극악무도하

게 감행하였지만 그로 하여 얻은것은 세계의 규탄과 조소, 비난뿐이었다.

미국의 책동은 모든 나라들이 동조해나섰다는 아니었다. 정의를 지향하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들은 미국의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반기를 들고나섰다. 세계 진보적인인들은 미국의 《인권》공세에 대처하여 우리 공화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해주었다.

미국은 제 나라 땅에서 차고넘치는 각종 인종차별행, 인권유린범죄로 하여 세계의 규탄과 배격을 면치 못하였다. 유엔고문대위원회를 비롯한 권위있는 국제기구들과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권침해행위를 폭로규탄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나라에 《인권법외적자의 감투를 씌우려던 검은 속심이 날발이 드러나 미국의 개혁당신을 당하였고 진짜인권법외적자는 미국이었다는것을 세계에 똑똑히 확증시켰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다는것은 지난해가 보여준 현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선군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역력히 다지고 나라의 생명인 국권을 든든히 지켜온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지난해에 계획한 법외적인 두 전통은 올해에도 변함없이 흐를것이다. 경쟁하는 경쟁은 동지의 탁월한 명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의 전통을 이어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 사상과 도덕의 힘으로 만장일치 필승불패의 혁명적투쟁력이 있고 경쟁하는 경쟁은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 있으며 우리 당의 위대한 선군정치와 병진로선이 있는 한 우리는 백전백승한다.

우리는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주변관계도 어떻게 바뀌는 결국 우리 나라에 인권을 압박하려는 적들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선군정치와 병진로선을 끝까지 견디고 최후승리를 앞당겨주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계속해나갈것이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최후승리를 확신하고 백두의 눈보라처럼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한다.

리 경 수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 민족적단합과 경제발전문제에 대해 언급

기대통령 말과 폰페가 신년연설에서 나라의 단결과 경제개발을 이룩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지난해 에볼라비루스의 전파로 많은 인적 및 물질적피해를 입고 경제장성에서 엄청난 난관이 조성되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새해에는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사회환경을 마련하고 경제발전과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기 위해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적도기대통령 오비양 는게 마르브라고는 1일 신년연설에서 민족적단합을 이룩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적도기대는 어제의 적도기나라가 아니라고 하면서 정부

가 이미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정의와 평등, 애국주의, 인권존중, 민족적단합을 위한 정치적 대화와 단결을 실현할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동하고 발전수기를 확립하며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를 강화해나갈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가봉대통령 알리 봉고 옹당바는 신년연설에서 나라의 경제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나갈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정부가 경제의 다각적발전 에 힘을 넣을것을 제언하면서 그동안 년평균 약 6%의 경제장성을 기록하였다고 말하였다. 지난해 국제원유가격의 심한

변동은 경제의 다각화가 얼마나 절실한 문제라 나타는가 하는것을 실증해주었다고 하면서 그는 전체 인민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애국심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알제리대통령 아브델아지즈 부메디켄이라고 최근 새해를 맞아 발표한 신년사말에서 경제발전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전체 인민이 높은 자각을 가지고 사회적정의와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며 경쟁력을 다각화된 민족경제를 건설하는데 적극 펼쳐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조성사업과 주택건설을 비롯한 대규모공사를 힘있게 내밀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이크로팔라 씨리세나 스티리강대통령으로 선거

스티리강에서 마이크로팔라 씨리세나가 대통령으로 선거되었다. 그는 8일에 있는 대통령선거에서 패산수의 지지표를 받았다. 9일 수도에서 대통령취임식이 진행되었다.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이란정부는 모든 이슬람교도들이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란정부는 폭력과 테로, 강점을 반대하는 이슬람교도들이 행위를 적극 지지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포드프바르데대통령 알라싼 우아바라가 7일 내각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현시기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재기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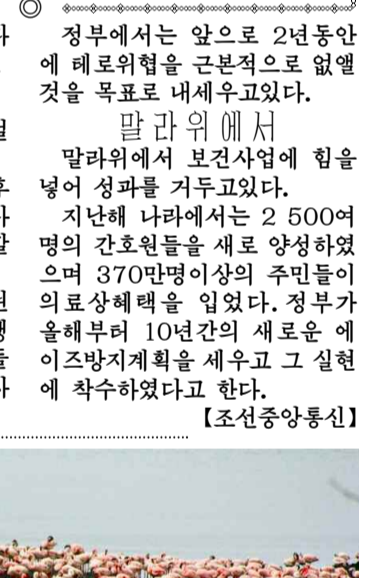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로씨야에서 전라코트군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전라코트군사령관은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에 현대적인 미사일총합체 로씨야전라코트부대에게 차지하는 몫이 50%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2020년까지 그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릴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올해에 14차례의 미사일발사체군이 예정되어있으며 24기의 《야르스키》미사일총합체 군부대에 납입되게 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로씨야의 팔레세즈크우주발사장에서 지난해 12월 23일 새로운 중량급안타로켓 《안가라-A5》의 발사성과 성과를 증명하였다. 선진적인 기술로 제작된 이 안타로켓은 미사일공격을 예측하고 정찰과 항해, 통신, 중계 등의 사명을 지닌 우주기구를 임의의 궤도에 진입시킬수 있다고 한다. 부전대통령은 이번 발사를 로켓-우주부대 그리고 전로씨야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변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것은 로씨야가 우주개발분야에서 맨 앞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장비를 차지한 공인된 나라라는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하였다.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에서 테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있다. 7일 파키스탄대통령 말는 후세인은 테로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군사재판소를 새로 설립할데 관한 법안을 비준하였다. 법안은 파키스탄법도와 주권기관들, 주민들에 대한 테로행위를 감행한 범죄자들과 집단을 제재할수 있는 권한을 군사재판소에 부여하였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2년동안에 테로위험을 근본적으로 없앨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말라위에서 보건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지난해 나라에서는 2 500여 명의 간호원들을 새로 양성하였으며 370만명이상의 주민들이 의료상혜택을 입었다. 정부가 올해부터 10년간의 새로운 에이즈방지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말라위의 국립공원



말라위의 국립공원

폭설과 눈사태피해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최근 많은 눈이 내려 피해를 입었다. 강풍을 동반한 폭설로 6일 현재 수천명의 주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완전히 중단되고 학교들이 문을 닫았다.

고병원성조류독감 발생

이탈리아의 베네토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였다. 지난해 12월 17일 이 나라 보건당국은 그곳에 있는 목장에서 죽은 칠면조들을 검사한 결과 그것들이 H5N8형 고병원성조류독감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영양학전문가들의 경고

영양학전문가들은 여러차례 일일 영양섭취량을 초과하고있는것을 경고하며 식습관을 바꾸고 건강을 지키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들은 인민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습관을 바꾸고 건강을 지키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는 법이다

2011년 미국무성은 마그니찌키사건관계자들의 《검은 명단》이라는것을 만들어놓았으며 2012년 12월에는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이 법에 수료하였다. 한편마그니찌키사건은 《인권을 유린한》 로씨야고위성원들에게 입국금지과 은행계좌를 가하는 법으로 로씨야와의 관계에서 저들의 비위에 거슬릴 때 마다 꺼내들곤 하는 대응수단이었다. 이것은 로씨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로씨야에 새로운 대결을 불러오는 불씨로 되었다. 미국은 저들의 경제체제가 이렇다 하게 빛을 보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인권의 간판을 내걸고 로씨야에 대한 경제소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린것이다. 미국의 이번 경제책동에 대해 로씨야의 이번 대응은 마그니찌키사건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극히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것이라고 깨닫고 나서 제제가 우크라이나에서의 평화과정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서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것을 여실히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로씨야에서 전라코트군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전라코트군사령관은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에 현대적인 미사일총합체 로씨야전라코트부대에게 차지하는 몫이 50%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2020년까지 그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릴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올해에 14차례의 미사일발사체군이 예정되어있으며 24기의 《야르스키》미사일총합체 군부대에 납입되게 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로씨야의 팔레세즈크우주발사장에서 지난해 12월 23일 새로운 중량급안타로켓 《안가라-A5》의 발사성과 성과를 증명하였다. 선진적인 기술로 제작된 이 안타로켓은 미사일공격을 예측하고 정찰과 항해, 통신, 중계 등의 사명을 지닌 우주기구를 임의의 궤도에 진입시킬수 있다고 한다. 부전대통령은 이번 발사를 로켓-우주부대 그리고 전로씨야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변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것은 로씨야가 우주개발분야에서 맨 앞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장비를 차지한 공인된 나라라는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하였다.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에서 테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있다. 7일 파키스탄대통령 말는 후세인은 테로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군사재판소를 새로 설립할데 관한 법안을 비준하였다. 법안은 파키스탄법도와 주권기관들, 주민들에 대한 테로행위를 감행한 범죄자들과 집단을 제재할수 있는 권한을 군사재판소에 부여하였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2년동안에 테로위험을 근본적으로 없앨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말라위에서 보건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지난해 나라에서는 2 500여 명의 간호원들을 새로 양성하였으며 370만명이상의 주민들이 의료상혜택을 입었다. 정부가 올해부터 10년간의 새로운 에이즈방지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말라위의 국립공원



말라위의 국립공원

앞날이 없는 자본주의 사회

경영형편 악화 미상무성이 지난해 12월 17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11월이 전국적인 살림집전실착공량이 그전해 같은 달에 비해 7% 감소되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일본의 주요소매업체들에서는 판매량이 0.7% 줄어들이면서 8개월째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한다. 오스트랄리아에서도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기업체들의 경영형편이 악화되고있다. 5일 이 나라의 한 경제단체는 지난해 12월에 제작업 부문 기업체들의 경영형편을 보여주는 지수가 그 전월보다 3.2점 떨어졌다고 밝혔다. 범죄 성행 도이월란드의 베를린에서 지난해 12월 20일 무면운 한 4명의 범죄자들이 백화점에 뛰어들어 가스총을 쏘아대면서 한들을 부린 결과 11명이 질식사되었다. 이보다 앞서 19일 오스트랄리아의 북부지역에서 37살 난 녀성이 7명의 자기 자식과 1명의 조카딸을 칼로 마구 찢어 무참히 살해하여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영양학전문가들의 경고

영양학전문가들은 여러차례 일일 영양섭취량을 초과하고있는것을 경고하며 식습관을 바꾸고 건강을 지키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들은 인민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습관을 바꾸고 건강을 지키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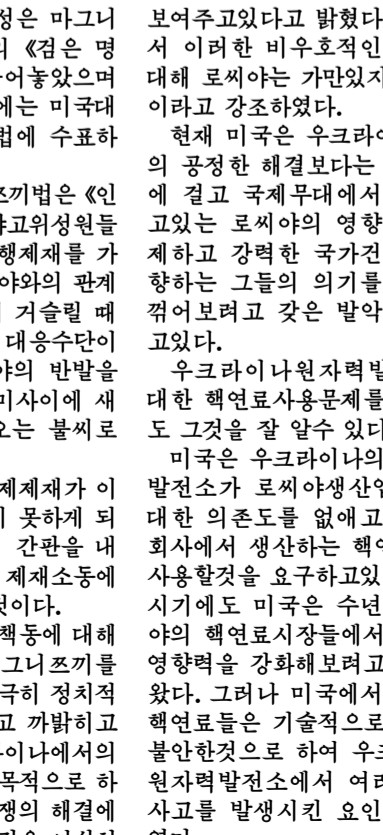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는 법이다

2011년 미국무성은 마그니찌키사건관계자들의 《검은 명단》이라는것을 만들어놓았으며 2012년 12월에는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이 법에 수료하였다. 한편마그니찌키사건은 《인권을 유린한》 로씨야고위성원들에게 입국금지과 은행계좌를 가하는 법으로 로씨야와의 관계에서 저들의 비위에 거슬릴 때 마다 꺼내들곤 하는 대응수단이었다. 이것은 로씨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로씨야에 새로운 대결을 불러오는 불씨로 되었다. 미국은 저들의 경제체제가 이렇다 하게 빛을 보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인권의 간판을 내걸고 로씨야에 대한 경제소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린것이다. 미국의 이번 경제책동에 대해 로씨야의 이번 대응은 마그니찌키사건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극히 정치적인 동기에 의한것이라고 깨닫고 나서 제제가 우크라이나에서의 평화과정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서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것을 여실히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로씨야에서 전라코트군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전라코트군사령관은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에 현대적인 미사일총합체 로씨야전라코트부대에게 차지하는 몫이 50%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2020년까지 그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릴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올해에 14차례의 미사일발사체군이 예정되어있으며 24기의 《야르스키》미사일총합체 군부대에 납입되게 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로씨야의 팔레세즈크우주발사장에서 지난해 12월 23일 새로운 중량급안타로켓 《안가라-A5》의 발사성과 성과를 증명하였다. 선진적인 기술로 제작된 이 안타로켓은 미사일공격을 예측하고 정찰과 항해, 통신, 중계 등의 사명을 지닌 우주기구를 임의의 궤도에 진입시킬수 있다고 한다. 부전대통령은 이번 발사를 로켓-우주부대 그리고 전로씨야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변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것은 로씨야가 우주개발분야에서 맨 앞

말라위의 국립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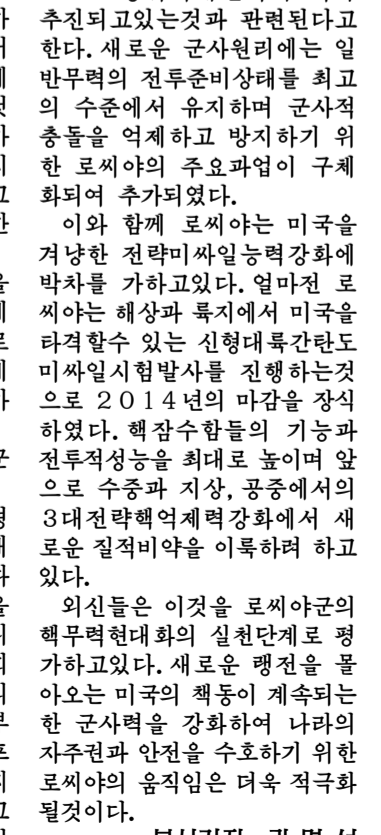


말라위의 국립공원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로씨야에서 전라코트군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전라코트군사령관은 얼마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에 현대적인 미사일총합체 로씨야전라코트부대에게 차지하는 몫이 50%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2020년까지 그 비율을 100%까지 끌어올릴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올해에 14차례의 미사일발사체군이 예정되어있으며 24기의 《야르스키》미사일총합체 군부대에 납입되게 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로씨야의 팔레세즈크우주발사장에서 지난해 12월 23일 새로운 중량급안타로켓 《안가라-A5》의 발사성과 성과를 증명하였다. 선진적인 기술로 제작된 이 안타로켓은 미사일공격을 예측하고 정찰과 항해, 통신, 중계 등의 사명을 지닌 우주기구를 임의의 궤도에 진입시킬수 있다고 한다. 부전대통령은 이번 발사를 로켓-우주부대 그리고 전로씨야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사변으로 된다고 하면서 이것은 로씨야가 우주개발분야에서 맨 앞

말라위의 국립공원



말라위의 국립공원